

**김 일 성**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전 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3일

존경하는 구스따브 후싸끄동지!

존경하는 루보미르 슈뜨로우갈동지!

존경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형제나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오신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체스꼬슬로벤스꼬로부터 가장 높은 급의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을 우리 인민에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의 표시로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굳은 련대성의 표시로서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더 깊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새롭게 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빛나는 투쟁로정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그리고 귀당과 귀국민민의 앞으로의 투쟁전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력사적으로 나라들사이의 분쟁이 심하였던 구라파대륙의 한 중심부에서 오래동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히틀러파시스트도당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되었던 어려운 나날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반파쇼해방투쟁을 용감히 벌렸습니다.

파쇼독일이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복잡한 투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1948년 2월승리후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으며 계급적원썬들의 거듭되는 파괴압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습니다.

오늘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사회를 더욱 전면적으로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4차대회의 강령에 따라 인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제5차 5개년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국제관계분야에서도 활동무대를 날로 넓히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어려운 조건에서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면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제2차세계대전 후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으나 두 나라에서의 공통된 경험은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독립,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여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고 긴밀히 협조하여왔습니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이 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이 전진도상에서 난관과 시련에 부딪칠 때마다 보다 큰 생활력을 나타냈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많은 원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오늘도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협조하여주고있습니다. 얼마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 회의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답에서 우리의 평화통일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방조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우리 인민을 형제적으로 지지협조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구스따브 후싸끄동지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그대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계속 좋게 발전하고있으며 국제주의적련대성은 강화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의 강화는 사회주의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있으며 세



계 사회주의의 진지가 공고하다는것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더욱 충실히 실행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국제정세는 계속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전 변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장성하는 력량앞에서 제국주의는 내리막 길을 걷고있으며 그 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미국은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 여러곳에서 침략과 간섭책동을 계속하고있으며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힘으로 내리눌러 자기의 식민지패권을 유지하려 하고있습니다.

조선, 캄보쟈, 월남, 라오스, 일련의 아랍나

라들 그리고 쿠바와 그밖의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은 이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미국은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 있는 자기의 식민지 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점으로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의 북과 남사이 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도 역시 량면전술을 쓰고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의 간판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분렬의 영구화를 꾀하고있으며 군사력증강에 온갖 힘을 다 돌리고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것으로 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한해전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도로 흐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합니다.

**1.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

장상태를 가시는것은 현시기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리해와 신임을 두터이하며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있는것은 그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와 불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호상신뢰의 기초우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속에 칼을 품고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며 대화를 한다는것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속에 품고있는 칼을 내놓지 않고서는 서로 믿음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으며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긴절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문제들이나 이리저리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 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며 민족분렬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러한 입장을 버리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2.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

**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적紐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어야 북과 남사이에 맺게 될 평화협정도 보다 공고히 할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서로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자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합작을 극력 반대하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량심을 조금

이라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리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합작을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할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3.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

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합니다.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것입니다.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련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5. 우리는 분렬이 고착되어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지만 이것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리용하려는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엔가입문제와는 달리 유엔에서 조선

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는 경우에는 응당 우리 공화국대표가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결코 둘로 갈라져 살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새로운 공정한 통일제안에 성의를 가지고 대할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이 급변하는 오늘의 정세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미국이 큰 나라들과만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른바 《반공》의 간판밑에 인민의 버림을 받은 앞잡이들을 부축하여주는것으로써 자기의 식민지 지배권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도리어 세계의 대다수나라 인민들의 항거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파멸과정을 앞당길것입니다.

오늘 유엔은 미국이 유엔의 《결의》에 빙자하여 자기 군대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책동에 대하여 마땅히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엔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함으로써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게 지난 시기

유엔에서 만들어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세계의 대세가 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파산되어가는 내정간섭책동에 의연히 적극적으로 추종하여 앞장에서 날뛰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일본군국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 역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틈을 타서 남조선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교활한 책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다시금 경고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요

인의 하나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의 엄격한리행을 보장하며 북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남부에서 평화와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새로운단계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라오스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적화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미국은 캄보쟈에 대하여 매일매시각 수많은 폭탄을 퍼부으면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으나 이것은 자기의 폭탄으로 자기의 위신과 존엄을

과괴하며 자기의 야만성을 더 드러내놓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캄보쟈를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며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애국적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모든 아세아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해권,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구라파인민들은 두차례나 세계대전의 발원지로 되었던 이 대륙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이 지역 인민들이 기울이고있는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으로도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만세!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